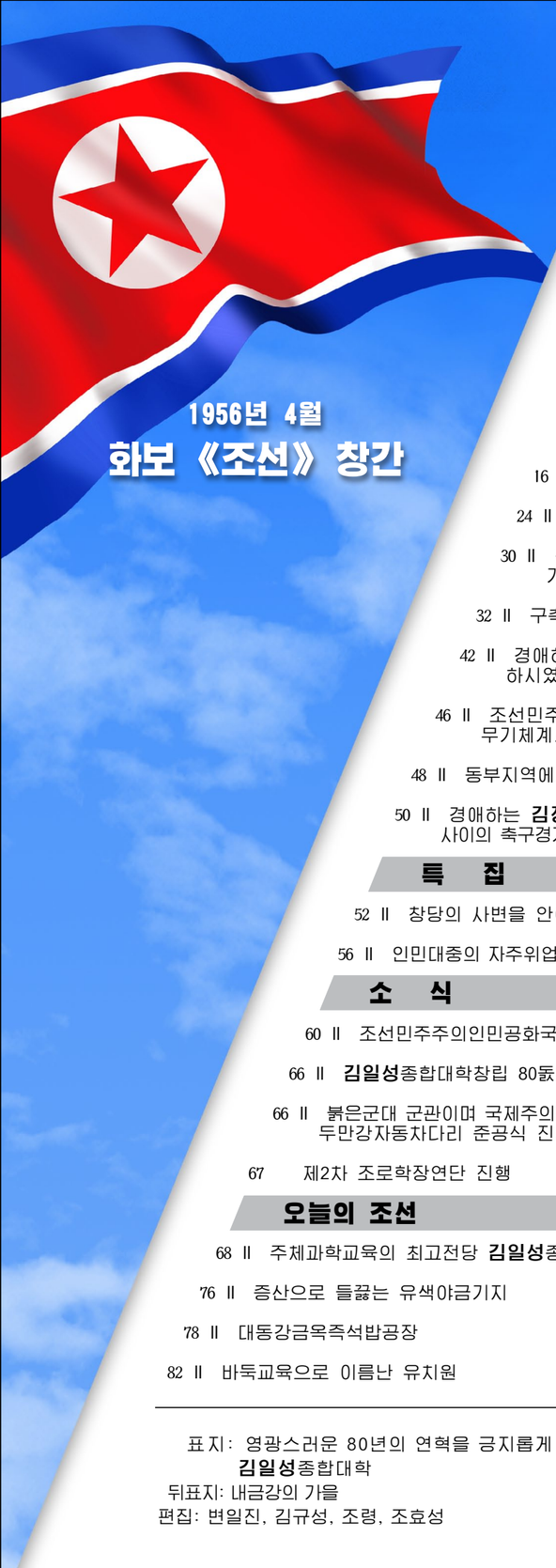
영광스러운 80년의 연혁을 긍지롭게 아로새긴 김일성종합대학



조선

2026 10

(847)



1956년 4월

화보《조선》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절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엄숙히 진행

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경절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하시였다

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1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6 ‖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진행

24 ‖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진행

3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2 ‖ 구축함 《강건》호 취역기념식 성대히 진행

4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공업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4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새로운 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 진행

48 ‖ 동부지역에서 전략미싸일발사훈련 진행

5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싸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특 집

52 ‖ 창당의 사변을 안아올린 력사의 집

56 ‖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새 출발을 선언한 《ㅌ.ㄷ》

소 식

6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을 성대히 경축

66 ‖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을 기념하여

66 ‖ 붉은군대 군관이며 국제주의전사인 야꼬브 노비첸꼬명칭 두만강자동차다리 준공식 진행

67 제2차 조로학장연단 진행

오늘의 조선

68 ‖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

76 ‖ 증산으로 들끓는 유색야금기지

78 ‖ 대동강금옥즉석밥공장

82 ‖ 바둑교육으로 이름난 유치원

표지: 영광스러운 80년의 연혁을 긍지롭게 아로새긴 **김일성**종합대학

뒤표지: 내금강의 가을

편집: 변일진, 김규성, 조령, 조효성



16



32



60



68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절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 엄숙히 진행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가리킨 혁명강령을 높이 받들고 거창한 변혁과 전진을 이룩해나가려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가 비상히 승화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과 가정들은 국경절 78돐을 맞이하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이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엄숙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평양시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기념의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를 호위하여 의식장에 엄숙히 들어섰다.

전체 참가자들은 애국의 끓는 피로 력사의 험난한 초행을 과감히 헤치며 값비싼 승리를 전취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기의 정상에 거연히 떠올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자긍심과 강용한 기상이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광찬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였다.

우리 국가의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력사를 휘황한 미래에로 줄기차게 빛내여가는 영광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망으로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졌다.

국가수반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장성발전을 도모함에 무한히 성실하며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의무를 엄격히 리행하며 사회주의리념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사랑하는 조국에 충성하여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무궁토록 이어가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것을 성스러운 국기앞에 엄숙히 선서하였다.

이어 **김정은**동지께서 국경절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경절에 즈음하여 나라의 부강과 발전을 위해 줄기찬 창조와 진함없는 헌신, 책임적인 기여를 하고있는 전국의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그리고 온 나라 가정들에 열렬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려정을 기원하며 조국과 언제나 숨결과 마음을 함께 하고있는 해외교포조직들,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고 해외군사작전에 참전하고있는 우리 군대 지휘관, 병사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모든 공민들의 애국심과 자각적로력, 헌신적기여에 의해 우리의 리상실현은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있으며 그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의 투쟁력 또한 격증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또 한해가 다르게 조선인민의 간고한 투쟁으로 하여 국위와 존엄은 선양되였으며 존엄높고 강력하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변혁하고 륭성하는 시대를 더 빨리 당겨올 기세 또한 충천해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이 전진할수록 기쁨과 만족이 커가는것이 아니라 리상과 포부가 더 먼저 크게 자라고있다고 하시면서 오늘보다 더 높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운 래일을 위해 투쟁하고 우리 식의 발전을 힘있게 이룩해가고있는 우리 혁명의 현실은 우리 국가의 무한한 잠재력과 단결된 힘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력력히 과시하고있으며 이 혁혁한 발전은 바로 다름아닌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실현되고있다고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며 나라에 충성하는 정의로운 인민의 마음과 노력들이 불가항력의 기둥이 되여 우리 국가의 빛나는 오늘을 힘껏 떠받들고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여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를 념원하게 하고있다고, 이러한 공통된 지향은 우리 국가와 인민모두를 단합시키고 국력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주고있으며 세월을 당겨나갈수 있는 자신심과 용기,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안겨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고 보폭을 크게 하며 힘있는 전진을 이룩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위대한 인민, 슬기로운 인민, 용감한 인민이 가는 앞길에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언하시고 전체 인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에 따스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시였다.

위대하고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과 지혜,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굳게 믿고 우리 국가의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김정은**동지의 열정적인 연설은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며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국가의 불멸할 영광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력사적성업의 전위에서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분투로 인민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경절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9일 평양의사당에서 공화국창건 78돐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주시였다.

력사적인 당 제9차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전망목표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관건적인 전진행정에 애국의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보람과 영예를 안고 그처럼 고대하던 영광의 시각을 맞이한 참가자들은 오래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더 위대하게 하고 우리 진보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우리 당과 뜻과 의지를 함께 하며 진함없는 헌신으로 이룩한 로력적 성과들을 안고 9월의 경축행사에 초대되여온 각 분야의 대표들을 따뜻이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애국자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우리 국가의 활기찬 발전과 당정책의 성공을 담보하는 제일 비결로, 무궁무진한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발전의 전례없는 앙양기를 지속적인 상승기에로 이어놓기 위한 새 단계의 투쟁은 세상에서 제일 강인하고 제일 근실하며 제일 슬기로운 조선사람의 특질과 기개를 체현한 선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약과 그에 일치 분발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열의에 의해 강국건설사에 또 한페지의 거창한 변혁기를 아로새기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우리 국가의 발전과 공세적인 전진의 려정에서 더 열렬하고 더 혁신적이고 더 완강한 분투로써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 사회주의애국근로자의 긍지높은 명예를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경사스러운 9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가장 존엄높고 관록있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영광스러운 80년의 연혁을 긍지롭게 아로새기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30일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승찬동지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 대학의 교육일군들이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다함없는 신뢰심과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교육정책관철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진함없는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며 혁명인재 육성과 높은 교육과학성과로써, 학업의 열정으로써 대학의 불후할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 실현에 공헌해가고있는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따뜻이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 민족간부육성의 시원을 열어놓은 모체대학이고 조선의 지성과 문명을 대표하는 최고 학원의 창립 여든돐은 나라의 큰 긍지이고 경사로 된다고 하시면서 성스러운 교단에서 신성한 본분에 충실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고있는 전체 교원, 연구사들과 조선을 높이 떨쳐갈



포부와 열망을 안고 학업과 탐구에 열중하고있는 학생들, 모교의 창립일에 추억깊은 감회와 따뜻한 마음을 얹고 있을 모든 졸업생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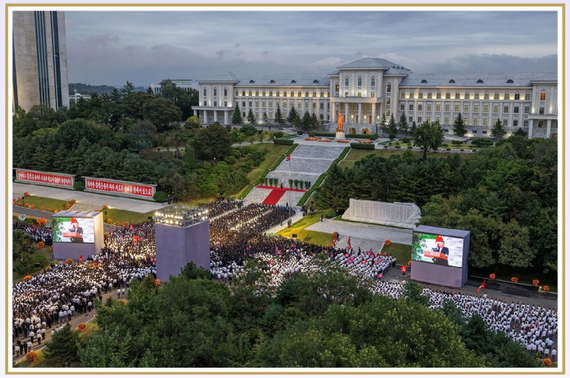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80년전 건국의 첫 기슭에 우리 국가의 골간을 이룰 인재육성의 원종장을 먼저 세운 고귀한 리념에 경의를 표하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이야말로 우리 국가를 상징하고 그 부강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관록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며 우리 인민의 지혜와 창조력을 당당히 대표하는 최우수인재들을 육성해온 공로있는 명문학원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력사의 초행으로부터 오늘까지 괄목할만한 교육과학성과로써 조국의 백년대계를 믿음직하게 세워온 대학의 긍지스러운 80년연혁에 대하여 회억하시면서 숭고한 애국의 경륜과 계승의 자취가 력력한 대학이 국가주권과 국위도 교육발전과 과학기술주권에 의해









담보되는 시대, 우리 조국의 오늘과 래일에 있어서 더없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국가건설전략의 훌륭한 성공을 담보해나가는데서 강력한 견인기적역할을 수행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일떠세우는 영예로운 투쟁의 전위에는 마땅히 종합대학이 서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대의 엄숙한 요구와 인민의 기대에 맞게 당중앙의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로선을 앞장서 관철하며 미래를 향한 든든한 전략적궤도를 부설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강국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은 오늘날 우리 당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3대필수요구이고 기본담보이라고 하시면서 이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는데서 대학이 차지하는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위치와 역할에 대한 당중앙의 견해와 기대를 피력하시고 **김일성**종합대학의 높은 질적발전으로써 새시대 사회주의 교육의 위대한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의 조국 조선을 위하여, 우리모두의 위대한 리상, 위대한 성공을 위하여 더욱 신심높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축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 기념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국가 최고학원의 창립기념일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환희롭게 장식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새시대 교육혁명의 전위에서 줄기찬 비약과 혁신의 힘찬 보폭을 내짚으며 조국의 자랑이 되고 인민의 슬기가 되여주는 조선의 기둥감, 재능있는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축하방문은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우리식 교육강국건설의 명확한 진로와 불멸의 지침을 밝히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교육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거창한 새 전기를 펼친 중대한 력사적계기로 된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일 창립 80돐을 뜻깊게 맞이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대학의 창립정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하시여 새시대 사회주의교육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고 한량없는 믿음과 최상의 영광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륭성과 함께 종합대학이 걸어온 80년의 연혁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증견하는 력사의 축도이며 강렬한 지향과 드높은 포부를 안고 나아가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슬기가 응축되여있는 긍지높은 행로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인재 육성의 시원을 열어놓은 모체대학, 가장 권위있는 최고학원의 창립일을 성대히 기념하는것은 당과 국가, 인민의 자랑이며 경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힘찬 전진을 견인하는 수많은 인재들의 뒤에는 사심없이, 그 어떤 대가도 바람이 없이 제자들의 성장의 자양이 되여주고 그들을 참된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주는 교육자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숭고한 책임감과 깨끗한 교육자적량심을 지니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생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교원, 연구사들의 고결한 삶과 애국적헌신에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이 지닌 사명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당과 인민의 기대 또한 대단히 크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의 전략적과업관철을 위한 핵심적, 주도적활약으로써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진행





력사적인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혁명강령의 성공적실행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당의 사상과 리론, 전략적방침들을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재인식, 재무장하는 전통적인 사업이 각 부문들에서 심화되고있는 속에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사상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우리 국가특유의 절대적우세와 정신도덕적우월성을 증폭시키며 전당의 선전일군들을 새로운 발전국면의 요구에 부응한 원숙한 자질과 풍모를 겸비한 유능한 정치활동가, 실력가형의 일군들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력사에서 세번째로 되는 선전부문일군강습회를 조직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식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쟁령역을 개척해나가는 행정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중시, 사상사업선행의 원칙과 립장을 더욱 엄격히 견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선전부문일군강습회의 중요성과 관련한 당중앙의 견해에 대하여 피력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개척해온 발전이라는 이 려정은 결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충진해온 사상적자원,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정신력과 용기에 의해 열려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자신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고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당 제9차대회가 내세운 거창하고 방대한 과업들이 성공적인것으로 되자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무진한 사상정신력의 발동을 전제로, 담보로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앞에 나서는 일감들과 동시에 제기되는









난문제들은 이 모든것을 해결해나갈 비결이 오직 사상의 힘에 있으며 사상사업의 위력을 최대로 동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리상하고 목표하는 진정한 부흥과 문명이 있음을 시시각각 새겨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있는것은 사상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시대의 높이에로 더욱 승화시키자는데 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사상사업으로 사회발전을 선도하는것이 항상 중시해야 할 문제라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사상리론이 있고 사상사업의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또 정연한 사상사업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에서의 질적인 개변을 강력히 선도한다면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은 물론 우리 혁명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게 될것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요구와 혁명의 전망적요구들까지 결부하여 적극적이며 진지한 자세로 깊이있게 학습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였다.

모든 혁명시대, 모든 투쟁시대는 자기 시대에 고유한,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여야 합니다.

지난날의 낡은것을 답습하기는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오늘에 맞는 새로운것을 창조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년대들에 활약한 유명무명의 수많은 선전일군들이 자기 시대에 부여된 혁명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많은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로 하여 우리 혁명의 귀중한 사상적재부, 사상사업전통이 마련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도 당적요구, 시대적요구, 실천적요구에 부합되는 새롭고 참신하며 실효가 큰 선전사업수단과 방법들을 적극 탐구하고 구현해나갈 때 우리 시대의 급속한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사상진지는 더욱 든든해질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강습회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습득하는데 전념함으로써 강습회기간을 유익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사상사업력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새기는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로 될 이번 강습회를 그 어느 부문의 대회나 강습회보다 중시하고 기대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립장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창학동지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리일환동지가 첫 강의에 출연하였다.





우리당 사상사업력사에 또 하나의 뚜렷한 장을 아로새긴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가 9월 21일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폐강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폐강식에 나오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가 우리당 사상제일주의의 불변한 원칙과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시대적사명감을 전당의 선전부문 일군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상사업혁신의 주요공정으로 되게 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사상적자원을 백배하고 우리 위업의 계승담보를 공고히 다져야 한다는 신성한 혁명적 자각, 막중한 책임의식을 새롭게 굳힌 당선전부문 일군들이 항시 명심해야 할 공산주의자로서의 근본과 주체의 사상론의 절대의 생명력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인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우리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토대하여 마주한 줄기찬 투쟁로정에서 우리의 리상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당중앙위원회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을 고무해주고 더욱 다채롭게 해줄 선전선동사업, 문화창조사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고대하는 시대와 혁명, 인민의 기대에 맞게 사상사업의 내용과 형식, 방법과 수단을 진보와 발전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전당적인 사상사업혁신을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의 불가항력으로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당겨오는 우리의 려정에는 더 큰 성공과 변혁적성과들이 끝없이 새겨질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전체 강습회참가자들이 사상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의 사상적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시대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을 선언하시였다.

사상을 제일무기로 삼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선전일군으로서의 크나큰 영예와 시대적사명감, 혁명적열정을 백배해주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만장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호응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상의 힘으로 인민을 혁명에 불러 주체의 새시대를 개척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당력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써나가는데서 사상적근위병의 본분을 다해나갈 신념과 맹세를 담아 노래 《조선로동당 만세》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주체의 붉은 당기를 억세게 추켜들고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강위력한 사상공세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의 앙양기를 힘차게 이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로 장내는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4일간에 걸친 강습회는 우리당 위업의 변함없는 계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담보이며 관건적인 요구인 사상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변과 사상진지의 질적강화를 새로운 각오와 분발, 원숙한 자질과 풍모의 적극적인 배양으로 강력히 선도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비상한 정치의식과 열의속에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개강식에서 하신 중요연설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기 위한 집중학습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투쟁의 령역과 모든 활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전면적발전시대에 우리 당이 장구한 세월 충진해온 사상적자원, 조선혁명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시대의 높이에로 더욱 승화시킬수 있는 고귀한 지침들이 집성된 강령적문헌을 심도있게 연구학습하면서 시대변화의 흐름보다 우세하고 현실을 공세적으로 앞서나가는 당사상사업의 긍정적변화를 기대하는 당중앙의 의도를 드팀없이 실천해나갈 혁명적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사상사업, 선전사업을 전담하고있는 자신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사상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고도의 자각속에 강습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육일군들이 강습에 출연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습회기간 취급되는 내용들을 당면한 실천적 요구와 혁명의 전망적요구와의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진지







하게 학습하면서 사상사업의 진수와 묘리, 원숙한 방법론을 폭넓게 습득하는데 사색과 연구를 집중하였다.

항상 새것과 발전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습벽화하고 사상사업의 계획성, 목적의식성, 주도세밀성을 보장할수 있는 유익한 견해와 경험들이 적극적으로 교환공유되였다.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투쟁령역을 개척해나가는 행정에서 주체의 사상론의 위력을 증폭시켜 당과 혁명대오를 일심일체의 성새, 사상적순결체로 더욱 강화하며 우리 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는데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제 15 차 전 국 교 원 대 회 진 행

조선로동당의 독창적인 교육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국가를 세계적으로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되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제15차 전국교원대회가 9월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후대육성, 인재육성사업을 혁명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온 나라 인민의 크나큰 기대속에 소집된 이번 대회는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철저한 실행을 비롯하여 당 제9차대회가 교육부문앞에 제시한 웅대한 목표들을 빛나게 관철하는데서 필수적이며 책임적인 공정으로 된다.

대회에서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이후 지난 7년간 당의 교육정책집행정형을 심도있게 분석총화하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질적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현실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회에는 전국의 모범적인 교육자들과 중앙과 지방의 교육부문 지도일군들, 련관단위 일군들, 총련교육일군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주요교육기관의 책임일군들, 모범적인 교원들과 교육일군들, 후원단체 일군들, 총련교육일군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김정은동지께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이 어느 분야의 사업보다 뒤질수 없는, 뒤져서도 안되는 국가적인 제일중대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일관한 우리의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대회를 특별히 중시하는 당중앙의 기대와 교원들에게 항상 표하고싶었던 깊은 존경의 인사를 직접 전할수 있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을 주시는분이 어머니라면 그 생을 다듬어 키워주는 은인들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면서 영광스러우면서도 힘겨운 교육자의 인생을 스스로 택하고 숭고한 책임감과 고결한 인격의 무게로 교단의 신성함을 지켜가고있는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전체 총련교육일군들에게 가장 뜨거운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원들의 대회합이 오늘까지 15차라는 기록을 새기고있지만 이번 대회와 같이 우리 교육자들이 조국에 드리는 값진 열매들과 인민이 인정하는 성과들로써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맞이하는 대회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20년도 10년도 아닌 불과 몇해사이에 체계와 구조, 내용과 방법, 조건과 환경, 사회적관심과 후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령역에서 실로 현격한 변화를 이룩하고있는 교육부문의 현실을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교육을 누구나 부러워하고 받고싶어하는 최고의 교육, 조국의 부강번영을 강력히 견인하는 세계일류급의 교육으로 되게 하려는 당의 리상과 의지,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세우는 설계가, 건설자이며 교육혁명의 주체인 전체 교육자들에 대한 굳은 믿음을 다시금 피력하시고 본 대회의 성과를 확신하시면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의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축하시를 랑송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의 성과적진행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표명하시면서 전체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7년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따라 공화국의 일대 륭성기를 펼쳐가는 용용한 흐름과 더불어 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변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된 자랑찬 년대기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인재와 과학기술을 주되는 전략적자원으로, 자립, 자강의 제일가는 동력으로 내세우신 **김정은**동지께서 당의 교육혁명방침관철에서 교원들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당 제8차대회에서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는것을 교육의 총적목표로 천명하시고 교육혁명수행을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교육사업의 한 공정, 한 고리를 다 조국과 혁명의 백년지계를 위한 사업으로 중시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에 따라 중요당 및 국가회의들에서 교육문제가 중요의제로 상정되고 교육혁명의 활기찬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방략들이 책정되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교육의 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는것을 교육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중심과업으로, 교원진영을 강화하는것을 교육사업발전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시고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시였으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전 령역에서 통이 크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한생 교육사업에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는 성실한 교원들을 참된 애국자, 공로자로 높이 평가하시며 영광의 단상에 세워주시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온 나라 교육자들이 더없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은**동지는 가장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로 교육발전의 전성기를 펼치시여 강대하고 부흥번영하는 우리 국가의 창창한 래일을 앞당겨오시는 탁월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당중앙의 손길아래 지난 7년간 교육부문 사업에서 이룩된 괄목할 성과들을 총화하였다.

보고에서는 일련의 편향들도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는 새 전망계획기간 교육사업의 목표를 모든 학생들을 혁명실천에 이바지하는 튼튼한 인재로 알차게 키우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수준차이를 결정적으로 줄이며 나라의 전반적교육토대를 현대적으로 완비하는것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과업들을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나라로 공인될수 있게 하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모두다 교육혁명의 직접적담당자, 인재교육전선의 전초병이라는 숭고한 자각과 애국적자세를 가지고 배가의 열정과 분투로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교육발전목표를 기어이 달성함으로써 교육강국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를 힘차게 열어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당중앙의 값높은 평가와 믿음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의 정치적열의가 비등되는 속에 대회는 일정대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4일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교육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교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미래와 잇닿은 교단에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존경과 영예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을 우러러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이번 대회를 주체교육발전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과 도약의 계기로 빛내인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우리 당과 국가가 절대적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은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 훌륭한 재사의 대군이 드놀지 않는 주추가 되고 굳건한 성벽이 되여 우리의 사상과 위업을 억척으로 옹위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역군들을 충실하게 키워 내세우는데 바쳐진 교육자들의 헌신과 공적을 또다시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 국가부흥의 모든 기적과 승리가 온 나라의 교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새시대 교육혁명의 거창한 확대심화를 선언한데 이번 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교육자들이 공산주의적성격을 체현한 혁명가중의 혁명가, 조국의 번영을 위함에 온넋을 바치는 진정한 애국자, 높은 실력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현명한 스승이 될 때 믿음직한 후대들의 육성과 더불어 나라의 근간은 더욱 억세여지고 우리 위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교원들이 교단에 바치는 깨끗한 량심과 헌신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자들의 위훈으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모든 학생들을 견실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알차게 키우는데 혼심을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 참가한 총련교육일군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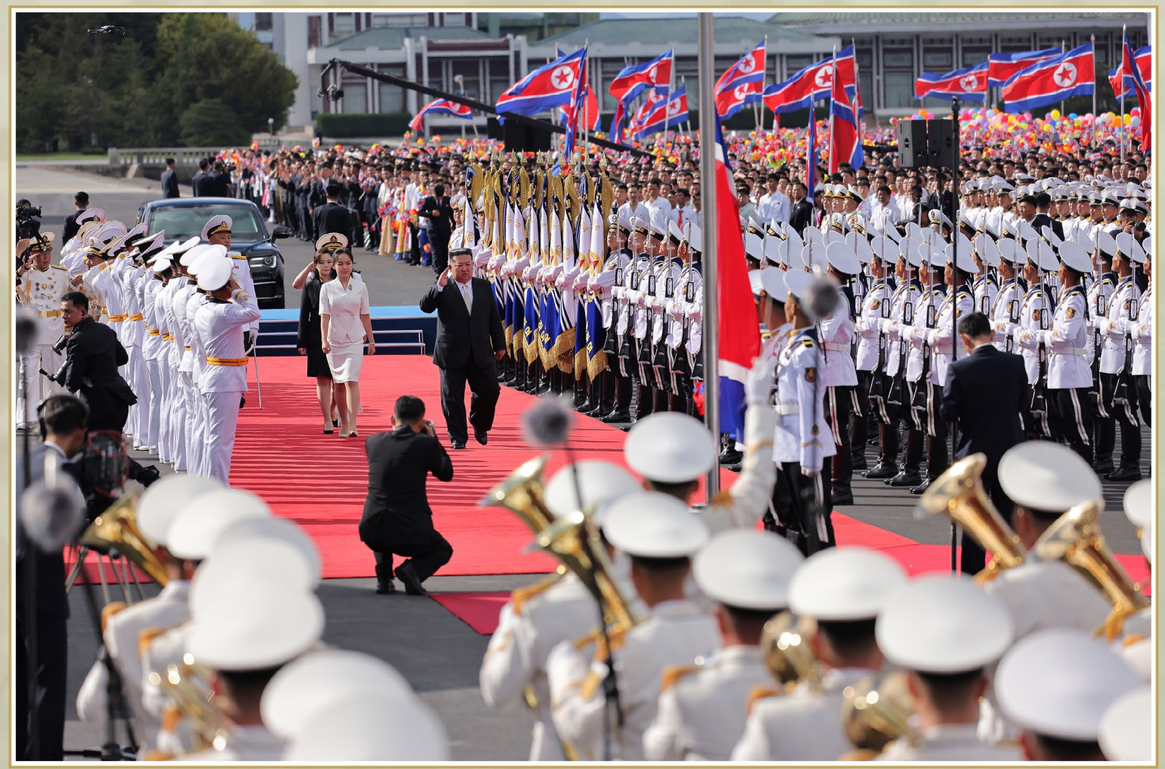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총련의 미래를 위하여 남다른 노력과 고심을 바쳐가고있는 총련교육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애국위업의 대를 이어나갈 훌륭한 역군,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라고 당부하시며 력사에 길이 남을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구축함 《강건》호 취역기념식 성대히 진행

우리 식의 해군전력강화를 위한 독창적인 개념들을 수용하여 그 어느 수역에서도 제시된 작전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복합적인 전투능력을 갖춘 《최현》급구축함 2호함인 《강건》호의 취역은 부국강병의 강렬한 열망과 포부를 안고 완강히 추진하는 당중앙의 원양함대건설의지와 해군현대화에로의 멈춤없는 진보를 과시하는 의미깊은 계기로 된다.







구축함 《강건》호 취역기념식이 9월 6일 원산항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취역기념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은**동지를 가장 열렬한 경의심을 안고 정중히 영접하였다.

국가수반을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의 영광의 군기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해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성스러운 우리의 국기가 승엄히 게양되였다.









신형구축함의 취역을 기념하는 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이어 구축함취역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동지가 구축함 《강건》호의 취역준비경과보고를 하였다.

선박공업상 김광일동지가 구축함 《강건》호의 인도문건을 조선인민군 해군에 인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여든한해전 바로 이 9월에 수령님을 모신 항일혁명투사들의 대오가 《개선》호를 타고 해방의 닻을 내렸던 항구에서 원양의 원대한 웅지를 안고 새세대구축함이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된 력사적감격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크지 않은 《개선》호에 실려왔던 부국강병의 웅지가 오늘은 최신전함에 실려 바로 이 추억의 항구에서 멀리 원양에로 뻗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처럼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현재와 미래의 안전에 관한 책임적인 태도와 관점에서 력사와 현시대의 요구를 평가하고 우리 식의 계산법으로 용기있게 도전한것은 해양국의 립지에 맞게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는 력사적대업을 절대로 후대들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세대의 자각과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고 하시면서 구축함 《강건》호는 우리의 경제, 국방, 과학기술력의 집합체이기 전에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자존심이고 의지이며 강인한 정신의 결정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해군의 핵무장화실현을 통해 핵전투체계들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전화하고 해상방위와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활동을 더욱 명백히 해야 하며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헌법적의무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해군의 책임적인 활동과 중대한 역할은 적들의 침략함대를 엄격히 구속하게 될것이며 분명코 전략적으로 퇴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힘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외에 평화수호의 그 어떤 다른 담보란 절대로 없으며 우리는 가장 위력한 전략자산들을 가장 중요한 수역들에 전개하여 공화국의 해상주권과













동북아시아의 안전환경,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원칙적이고도 책임적인 의지를 보여줄것이라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이 두려워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립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위임에 따라 구축함 《강건》호를 조선인민군 해군에 취역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동지가 랑독하고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박광섭해군상장에게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구축함 《강건》호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에 취역하여 우리 국가의 해상주권방위와 핵전쟁억제력으로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구축함해병들을 대표하여 《강건》호 함장 최철진해군상좌가 결의발언을 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의 열렬한 고무와 격려속에 구축함승조가 함대기와 군함기를 선두에 세우고 공화국해병의 영예드높이







함에 올랐다.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강건》호에 해군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9발의 례포가 발사되는 가운데 함에는 해군기가 전체 참가자들의 축원과 전투적경례를 받으며 엄숙히 게양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에 오르시였다.

취역출항을 앞둔 함에 국가수반을 또다시 모시게 된 크나큰 영광을 안고 함장이 **김정은**동지를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의 여러 전투공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절대불가침적인 국권수호의 성스럽고도 중대한 사명을 안고 투사의 이름으로 명명된 공화국의 새세대구축함 제2호함과 함께 영예로운 군무를 시작하는 전체 지휘관, 해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수갑판에서 구축함해병들을 만나시였다.

구축함 《강건》호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기념쌍안경이 수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축복속에 성대히 진행된 오늘의 함인계의식은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전략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서 또 한걸음 진보하는 력사적인 사변인 동시에 해군전성시대를 열어나가는 우리 위업의 불가항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세대구축함은 국가핵대응체계에 망라된 력량으로서 언제든 명령만 내려진다면 적들에게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의 힘, 조선의 정신, 조선의 담력을 체현한 구축함 《강건》호의 지휘관, 해병들이 공화국해군의 전투적행로를 보다 큰 영광에로 떠올리며 오직 승리만을 떨쳐가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표명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에서 내리시여 행사에 참가한 전세대 해군지휘관들과 뜨겁게 상봉하시였다.

해군사령관은 구축함 《강건》호의 출항을 명령하였다.

함의 출항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울려퍼지고 축포와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항만에 정박해있던 해군함선들이 일제히 축하신호기를 올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강건》호에 무적필승의 영예만이 깃들기를 기원하시며 전투적경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구축함의 취역을 기념하여 이날 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공업부문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동지와 군사위원 김정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병철동지, 리일환동지, 김여정동지, 김재룡동지, 오영재동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별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당 제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년도 생산목표수행에 총궐기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은 혁명적열의와 생산적앙양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며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열로 충만된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로력투쟁으로 우리 군수공업의 획기적인 장성과보다 자립적이며 선진적인 발전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가는 로동계급의 수고를 뜨겁게 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이 절실한 군사적 의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의 전투기술기재생산계획들을 책임적으로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결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시달한 방대한 계획들이 성과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고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이 우리 군대의 포병전투무력개편 및 현대화종합계획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에서 포치한 생산능력확대사업들도 드림없이 진척시키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군건설과 국방공업의 새로운 진보와 도약을 목표한 새 5개년계획수행에서 올해 시달된 생산계획 수행이 가장 관건적인것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이 지금의 생산추이를 계속 공고히 하고 전망적인 군수생산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하부구조보강사업도 병행하여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력한 포병무력건설은 전쟁억제와 전쟁수행의 기본핵으로 된다고,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가장 파괴적이며 대량적이고 다방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억제와 수행의 두가지 사명을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최근 우리가 포병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의 제반 구성요소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방면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우리 무력의 구성 및 수단들과 전쟁대응계획의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보유했거나 곧 보유하게 될 불가항력의 작용에 의하여 적들의 군사체계들은 점진적으로 쇠진되고 무용지물로 되여버릴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실현에서













제2경제위원회아래 각급 군수공업기업소들이 더 큰 몫을 맡아주어야 한다고, 우리는 나라의 군수공업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성과는 순수 증산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의심할바없이 우리의 주권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라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한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데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의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에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전략적힘을 끊임없이 장전하기 위한 애국적인 생산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능력확대와 기술공정현대화를 계속 다그치며 공격 및 방어전투무기체계들의 인공지능화수준을 제고하고 포무기들의 장갑화, 자동화를 더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 문제, 생산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기업소들의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중요한 정책적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한 핵심공장들에서 근무하는 전체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이 기질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계속 높이 발양하여 우리 무력의 급진적인 강화를 힘있게 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새로운 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9월 20일 무기체계 기술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시험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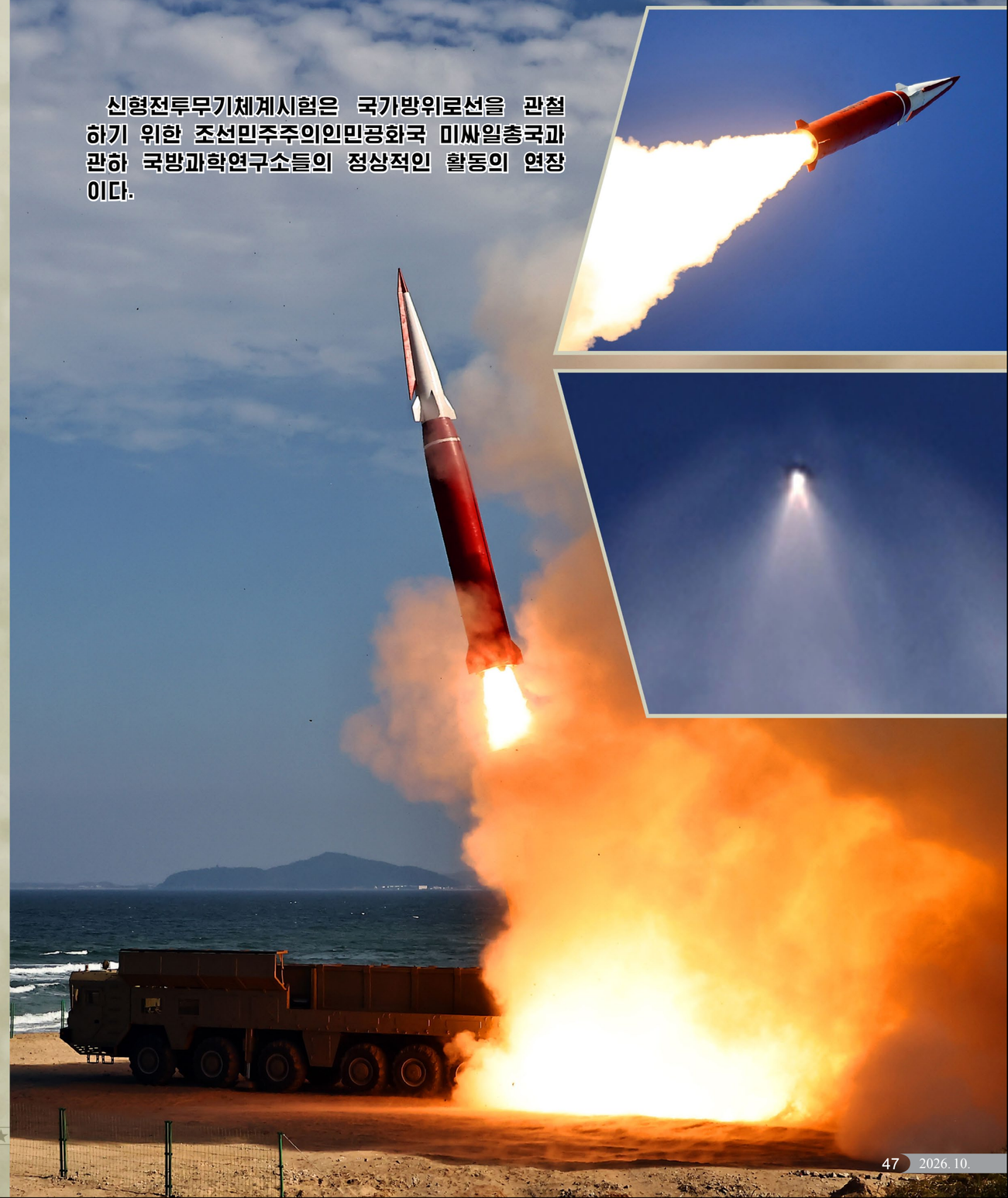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바없는 첨단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현대화에서의 뚜렷한 갱신이라고 하시면서 말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러한 기술의 획득은 국가의 전쟁대비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군사기술적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없이도 적수들이 더 잘 알것이라고,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두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례로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는 특별한 목적이 부여된 중요한 이 무기체계개발에 관여한 과학기술집단의 전문적인 력량과 그들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룩된 값비싼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미싸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 제작집단에 사의를 표하시였다.

신형전투무기체계시험은 국가방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과 관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연장이다.



동부지역에서 전략미싸일발사훈련 진행

10월 3일 새벽 우리 나라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은 극초음속전략무기체계를 다루는 미싸일병들의 화력복무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훈련을 참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억제력의 중요구성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성능제고 및 운용능력숙달을 통하여 강력하고 신뢰할수 있는 핵억제력을 구축하고 우리 군대의 반격수단들이 상시동원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며 책임적인 활동이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발사훈련을 통하여 전략미싸일병들은 중요공격무기체계의 운용에서 매우 능숙한 전문적자질과 임의의 시각에 동원될수 있는 반격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하였다.

나는 훈련에 참가한 미싸일부대 지휘관, 병사들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전략적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억제력행사의 한 형태이다.

매번 투명성있게 표명하는바이지만 숨길것없이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데 있다.

그것은 오늘의 지정학적환경에서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인것으로 된다. 이러한 우리의 견해와 로선에서 변화란 있을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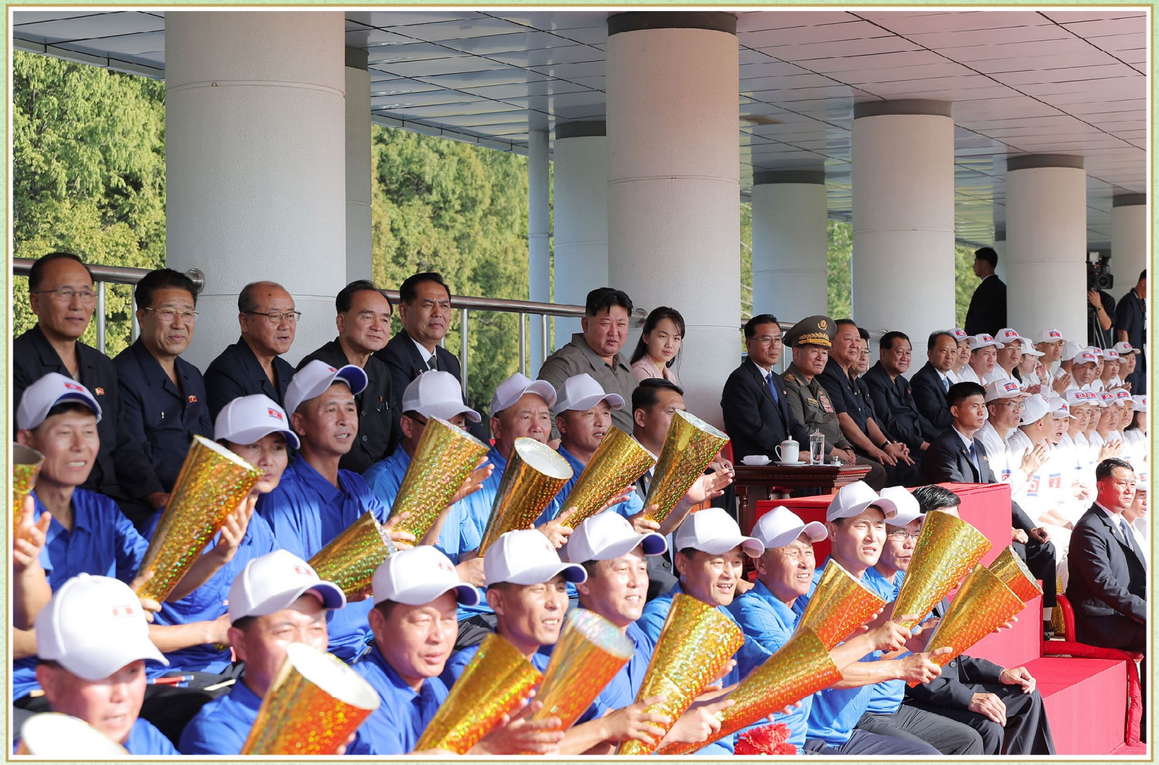
강력한 억제력으로 각이한 위협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건설과 활동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훈련에 사용된 미싸일은 북동방향으로 발사되였으며 조선동해상 1 000㎞ 거리의 위도 43° 36′ 28. 04″, 경도 138° 00′ 47. 02″ 설정목표점을 명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미싸일무력이 책임적인 전투직일태세로써 공화국의 주권안전수호사명에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미싸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사이의 축구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사이의 축구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 미싸일총국의 과학연구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로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축구경기는 미싸일총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사이에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무력현대화와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있는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로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있는 애국충의심과 헌신적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번영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혁명적락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방위력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렬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경기는 미싸일총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 : 1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창당의 사변은 안아올린 력사의 집

1945년 10월 10일은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날이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사를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 고이 간직한 유서깊은 당창건사적관이 평양시의 해방산기슭에 옛 모습그대로 서있다.

당창건사적관에는 해방직후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고 새 조국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집대성되여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면서 사무를 보시던 수수하고 검소하게 꾸려진 2개의 집무실과 응접실, 회의실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으며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많은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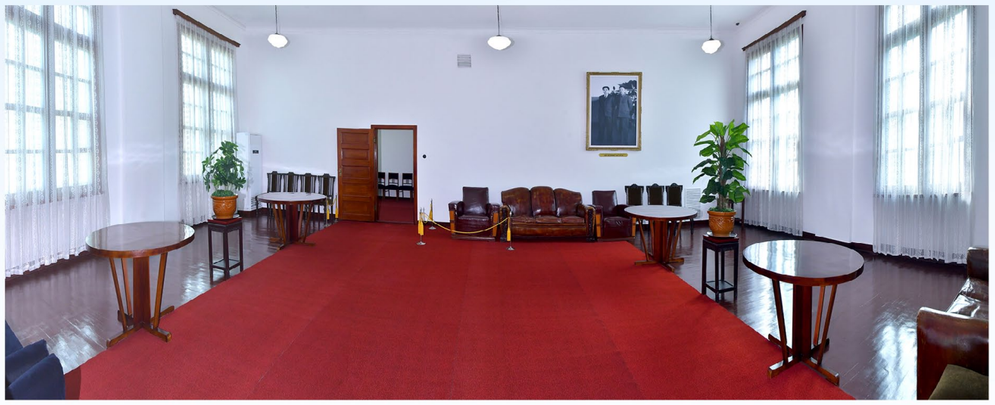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면서 당을 창건하시고 당의 강화발전과 새 조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우리 당의 력사적 뿌리를 마련하시고 간고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신 그이께서는 해방후 지체없이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항일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육성된 항일혁명투사들을 핵심으로 하고 국내외의



당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초안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5년 12월



응접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업하시던 집무실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당을 창건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을 고려하여 지방에 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당중앙지도기관을 꾸리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하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각 지방에 파견하시여 기층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파괴된 경제를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해 일제가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을 찾고찾으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당창건준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창건준비사업은 해방후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결되게 되였으며 1945년 10월 10일 마침내 당창건위업이 실현되였다.

그이께서 당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참모부를 가지고 새 사회건설과 새 생활창조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게 되였다.

당을 창건하신 후 그이께서는 당의 조직로선, 정치로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당을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정규적혁명무력과 인민정권건설의 력사적 위업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오늘도 당창건사적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창건업적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사진 라평렬, 글 강진성



회의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항일혁명 투사들과 함께 계시던 숙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새 출발을 선언한 《ㄹ.ㄷ》

ㄹ.ㄷ 100돐

1926-2026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을 결성하신 100돐이 되는 해이다.

새형의 공산주의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이 결성된 때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다.

이때로부터 조국을 해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에 오염된 낡은 세대와 결별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사대와 교조로 얼룩진 력사를 끝장내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일제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1905년-1945년)하고 있던 지난 세기 20년대중엽 중국 동북지방의 화전은 조선독립운동중심지의 하나였다.

화전에는 독립군의 지휘관들을 키워낼 목적밑에 세운 군사정치학교인 화성의숙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공부하시면서 선행세대들의 낡은 방식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새로운 길을 탐구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선진사상의 기치밑에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것이며 독립을 이룩한 다음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시였다.

1926년 10월 10일 그이께서는 무르익혀오신 조직결성에 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예비회의를 소집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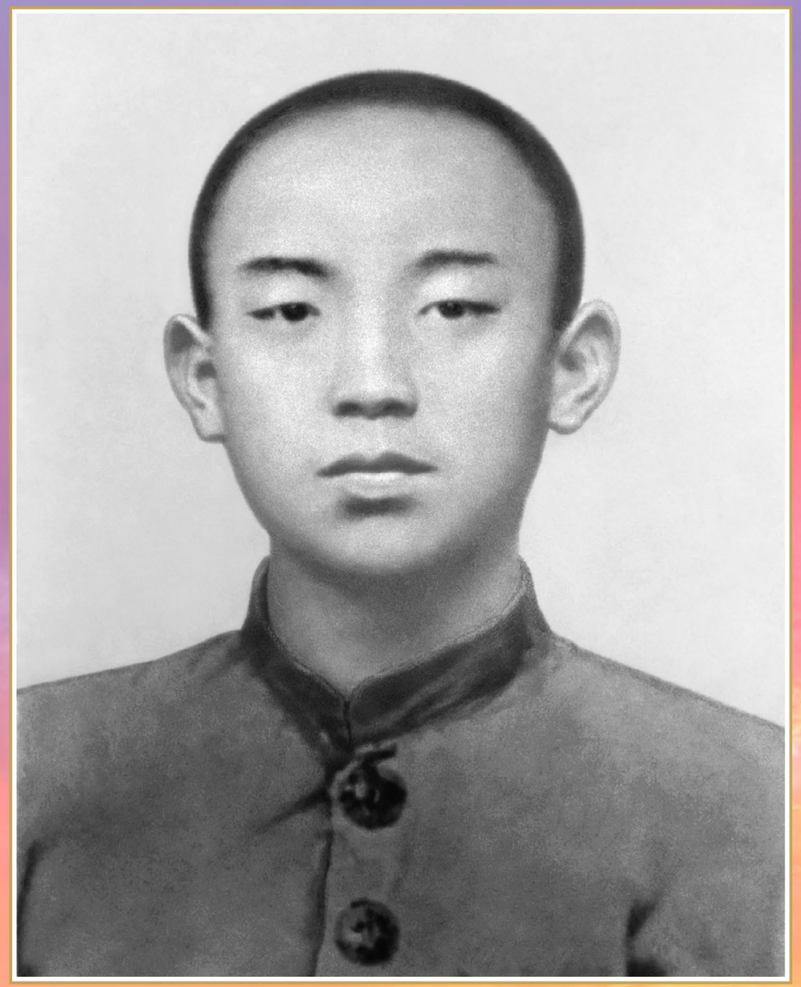
회의에는 그이와 뜻을 같이하는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과 활동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시였다.

그이의 제안은 회의참가자들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한주일후인 1926년 10월 17일 《ㅌ.ㄷ》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결성모임에서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밝힌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제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26년

하시였다.

《ㅌ.ㄷ》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웠으며 최종목적으로는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하였다.

반제, 독립, 자주를 리념으로 하는 《ㅌ.ㄷ》가 결성됨으로써 조선혁명은 뚜렷한 투쟁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핵심으로 하는 전민항전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고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도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실현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세인의 예상을 뒤엎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것도,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성과적으로 수행한것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줄기찬 발전을 이룩한것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를 생명선으로 내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오신데 그 비결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나라 당, 국가들과의 관계도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발전시켜오심으로써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을 높이 떨치시고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해오신 전 기간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하여오신 근본리념이고 투쟁방식이였으며 혁명실천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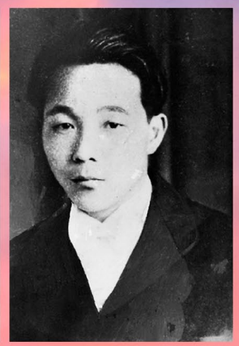
오늘 자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어로 빛나고있다.

글 박경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첫 성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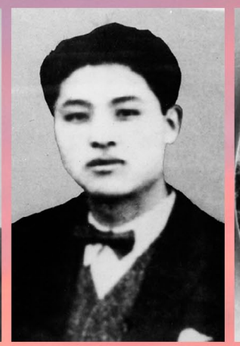
강병선



김원우



최창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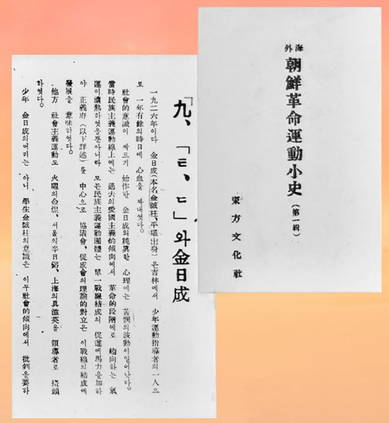
계영춘



박근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화전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계시던 집



海外 朝鮮革命運動小史 (第一輯)
東方文化社

九、「ㅌ、ㄷ」와 金日成

《ㅌ.ㄷ》의 결성과 활동에 관한 출판물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을 성대히 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을 맞으며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쳤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각지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 등을 찾은 근로자들은 조국의 해방과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바친 항일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 인민군렬사들의 숭고한 넋과 정신세계를 깊이 새겨안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한 시가행진 및 경축야회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기념 평양시안의 중앙급대학들사이 수영경기가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국경절을 맞으며 개막된 전국조각, 공예축전장에는 우리 당의 령도의 손길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한 시가행진이 진행되였다.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의 조각, 공예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상봉모임이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북도, 남포시 등지에서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진행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실화무대, 웅변모임 등에서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에 지혜와 힘과 열정을 바쳐갈 참가자들의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였다.

뜻깊은 명절의 기쁨을 더해주며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연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각지의 청소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흥겨운 경축무도회로 국경절의 분위기는 환희로왔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야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 경축공연이
평양의사당앞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을 기념하여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기념 국제학술토론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붉은군대 군관이며 국제주의전사인 야꼬브 노비첸꼬명칭

두만강자동차다리 준공식 진행







두만강자동차다리 준공식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도시 라선시와 로씨야련방의 국경도시 하싼에서 동시에 진행되였다.

제2차 조로학장연단 진행



제2차 조로학장연단이 《교육은 과학과 사회발전의 담보》라는 주제로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

- 창립 80돐을 맞는 김일성종합대학 -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1946년 10월 1일에 창립되였다.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은 나라의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적인 학자들과 뛰여난 인재들을 수많이 배출하고 특출한 과학교육성과들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다.



대학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 9월 1일부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력사의 그날부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이끄실 탁월한 령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맹세를 한생토록 지켜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대학시절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셔져있다.





대학에 모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

80년의 연혁사를 가진 우리 나라 과학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은 공화국의 첫 대학으로 세워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나라가 해방(1945년 8월 15일)된 직후 건국사업에서 민족간부육성의 중요성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으로 전국에 세울 각 대학의 모체로서 종합대학을 먼저 내오도록 하시고 대학창립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1946년 10월 1일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대학창립이 선포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랑스러운 자기의 첫 대학에 나라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였다.

1948년에 대학의 여러 학부들이 분리되여 오늘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원산농업대학이 창설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잡아주신 터전에 새 교사가 준공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손길아래 **김일성**종합대학은 1949년에 첫 졸업생들을 배출한 이후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수많은 민족간부들을 키워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대학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일찌기 1960년 9월 1일 대학이 있는 룡남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일 굳은 맹세를 다지신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그이의 대학기간(1960년-1964년)은 대학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이께서는 졸업후 혁명령도의 기간 대학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은 사회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의 학술형인재와 개발창조형인재들을 키워내는 강력한 교육과학력량을 가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는 22개의 학부가 있으며 전공학문에 따르는 90여개의 전공강좌, 60여개의 연구소, 250여개의 연구실이 있다.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세계일류급대학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하여 대학은 우리 나라의 과학과 경제 문화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뛰여난 실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핵심적이며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어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대학에 **김일성**종합대학창립 67돐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교원, 연구사들에게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려명거리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이 그쯘히 갖추어진 새 교사들이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대학은 오늘 우리 나라의 배움의







대학에서는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형교수방법, 연구형학습방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최고전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창립당시 7개 학부와 60여명의 교원들로 첫걸음을 뗀 대학은 현재 22개의 학부, 수백명의 원사, 교수, 박사들을 포함한 강력한 교원력량을 가지고있다.

평양시 대성구역의 룡남산일대의 넓은 부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중심으로 대학본관과 4개의 교사, 과학도서관, 자연박물관, 체육관, 수영관, 기숙사, 대학병원 등이 배치되여 거대한 대학촌을 이루고있다.

그쯘한 물질기술적토대와 쟁쟁한 두뇌진들을 가지고있는 대학의 과학연구력량은 공화국의 줄기찬 전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기본집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관심속에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시대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증산으로 들끓는 유색야금기지

- 문평제련소 -

강원도 문천시에 위치한 문평제련소는 나라의 믿음직한 유색야금기지이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 5개년계획기간에 비콕스 연제련공정을 확립하고 운영기술을 부단히 향상시켜 생산장성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제련소에서는 올해에도 대중의 정신력발동과 기술제고에 힘을 넣고 직장별, 작업반별,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매일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연제련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로동자들은 설비들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선진적인 전해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생산실적을 올리였다.

이밖에도 아연전해공정의 전해조에서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전기아연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또한 기술공정과 설비들의 현대화를 앞세우면서 제품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지금 문평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나가고있다.

사진 라평렬, 리명국
글 강진성

대동강금옥즉석밥공장

대동강금옥즉석밥공장은 우리 인민들의 체질과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즉석식품들을 많이 개발생산해내는 경쟁력있는 공장이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이 공장에는 즉석쌀생산공정, 즉석밥양념장생산공정, 완성포장공정, 포장용기생산공정 등 즉석식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최근 공장에서는 즉석식품의 기능화, 록색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첨가제가 아니라 인체에 부정적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동결건조기술로 즉석식품의 보관문제를 해결한 공장에서는 60여가지의 즉석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모두 국내에서 유기농법에 의하여 생산하는 알곡, 남새를 비롯한 천연원료로 우리 인민들의 구미에 맞게 만든것이 특징이다.

공장제품가운데서 인기를 끌고있는 것은 즉석카레밥, 소고기즉석국밥, 밥조개즉석밥, 두부즉석비빔밥, 닭뼈국물매운맛즉석국수 등이라고 한다.

특히 즉석카레밥은 주방에서 금방 지은것처럼 그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이 공장제품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의 원료로 우리의 기호에 맞게 만들어서인지 정말 구미가 동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평하고있다.

밀가루와 함께 록두, 메밀, 수수를 비롯한 여러 곡종으로 만든 마까로니와 스빠게띠 그리고 각종 낟알편튀기 등도 수요가 높다.

지금 《금옥》즉석밥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즉석식품으로 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사진 라평렬, 글 강진성



누구나 즐겨 찾는 금석밥

10분이면 임의의 장소에서
더운 밥을 드실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밥맛
그대로…

우리 제품은 국규 22000(ISO 22000)식품안전
관리체계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둑교육으로 이름난 유치원

- 대성구역 려명유치원 -

2017년 5월에 개원한 대성구역 려명유치원은 학령전교육을 잘하는 단위로 널리 알려져있다.

유치원에서는 우리말, 셈세기, 그림그리기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필요한 여러가지 교육을 주고있다.

특히 바둑은 이곳 교양원들이 큰 관심을 돌리는 항목이다.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에게 민속놀이이면서도 지능경기종목인 바둑의 유래를 비롯한 옛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바둑돌을 손에 쥐는 방법, 바둑판우에 돌을 놓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둑의 묘리와 수읽기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면서 바둑의 세계에로 이끈다.

이 과정에 려명유치원의 어린이들은 집중력과 기억력, 상상력, 관찰력 등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바둑경기들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쟁취하였다.

유치원의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천성적소질과 재능의 싹을 적극 찾아내고 꽃피워주는데도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유치원에서는 해마다 나어린 재간둥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PORTAL SITE OF DPR KOREA www.dprkportal.kp
로동신문 www.rodong.rep.kp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조선의 소리 www.vok.rep.kp
민주조선 www.minju.rep.kp
내나라 www.naenara.com.kp
The Pyongyang Times www.pyongyang-times.com.kp
청년전위 www.youth.rep.kp
류경 www.mediaryu-gyong.com.kp
조선의 책들 www. korean-books.com.kp
우체 www.kass.org.kp
www.mfa.gov.kp
조선관광 DPR Korea Tour www.tourismdprk.gov.kp
KOREAN ART www.korart.sca.kp
조선의 목소리 www.kftrade.com.kp
조선우표 www.korstamp.com.kp
www.ryomyong.edu.kp
인민봉공 INMINBOGON www.moph.gov.kp
www.mirae.aca.kp
조선혁명 Sports in the DPR Korea www.sdprk.org.kp
www.yongsaeng.org.kp
조선건축 Korean Architecture www.koreanarchi-tecture.com.kp
KORFILM www.korfilm.com.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gpsh.edu.kp
조선청년재간(회사) www.kiyctc.com.kp
조선들꽃회화예 www.korelcfund.org.kp
중앙동물원 Central Zoo, DPR Korea www.kza.org.kp
만물상 www.manmul-sang.com.kp
조선요리 www.cooks.org.kp
조선민족보험총회사 www.knic.com.kp
www.dprkrcs.com.kp
조선교육후원기금 KOREA EDUCATION FUND www.koredufund.org.kp
www.ma.gov.kp
www.fia.law.kp
명예 HONOUR www.dprknado.org.kp



© 조선화보사 2026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 중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ㄱ-26088058610